

2017년 11월 6일, 한림읍 한림3리 한림3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
변희선(여, 1937년생, 한림읍 한림3리)

- 줄거리: 옛날에 좌수가 하루는 부인이 일을 나간 사이에 미숫가루가 먹고 싶어 부엌에서 보리를 볶고 있었는데, 때마침 향교에서 온 사령이 전갈을 전해주러 왔다. 보리를 볶는 모습을 사령에게 들켜서 너무나 창피한 좌수는 하인을 시켜 사령을 혼냈다.

**[제보자]** 옛날에 왕하르부지가 좌수를 하셨거든, 할머니들은 옛날에 맨날 일을 나갔거든. 여름 때는 일 나가서 어두워서 들어오거든. 계난 개역을 먹고 싶어가지고, 개역 알아져?

**[조사자]** 예. 보리가루.

**[제보자]** 계난 개역을 먹고 싶으니깐 보리를 볶으젠 허난. 덥거든 여름에, 밀짚모자를 썼어. 페렝이, 페렝이를 써가지고 보리 볶았으니깐 향교에서 시에 향교에서 저 좌수니깐 사령놈이 전달을 왔어. 뭐 회의 보레, 지금 같으면 회의 보레 나오렌 허는 거지.

**[조사자]** 회의 오렌.

**[제보자]** 그 하르방이 보리를 볶았거든. 그 좌수 하르방이 챙피헌 거 아녀. 챙피. (웃음) 자기 이제 비서를 불러가지고 종놈을 불러가지고 저놈 저 마당더레 엎어놓아 볼길 두드리라고, 볼기는 여기거든(엉덩이 치며). 볼기 두드리라고 해서 때려낫던.

**[조사자]** 자기가 챙피, 자기가 걸리니깐?

**[제보자]** 응. 자기가 걸려가지고, 자기가 챙피허니깐.

- 핵심어 : 좌수, 개역(미숫가루), 종, 향교, 볼기, 엉덩이, 할머니, 보리가루, 밀짚모자, 사령, 하르방(할아버지), 마당